

예비유아교사의 정서, 경험에의 개방성 및 자기효능감과 창의성 간의 관계*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김 경 은¹⁾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3개 대학의 아동학 및 유아교육과 4학년 187명을 대상으로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경험에의 개방성, 자기효능감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예비유아교사의 정서, 경험에의 개방성, 자기효능감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효능감이 정서 및 인성(경험에의 개방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경험에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정서 및 경험에의 개방성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긍정적 정서는 창의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의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유아교사가 즐겁고 행복한 정서를 가지고 새로운 경험에 시도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이러한 자신감은 다양한 상황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정서 및 경험에의 개방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양성과정 동안, 예비유아교사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적 정서, 다양한 경험 및 자기효능감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창의성, 정서, 자기효능감, 매개모형검증, 구조방정식

* 본 연구는 2010년 남서울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교신저자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E-mail : leejay48@chol.net)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새로운 정보와 산물들이 쏟아져 나오며 동시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정보와 산물들은 도태되고 사라져 버린다. 이전에 비해 새롭고 유용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구성원들의 창의성은 조직의 혁신, 경쟁력,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onaka, 1991). 즉, 조직의 경쟁적 지위는 혁신(새로움)에 달려있다(McGregor et al., 2006; Thompson, 2003)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개정된 유치원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153호)에서도 창의성을 특정생활 영역이 아닌, 모든 생활영역의 교육활동에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특정 과목이나 시간이 아닌 유아의 자연스런 일상생활 속에서 창의성을 신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측면뿐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창의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성장과 자아실현 측면에서도 창의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ropley, 2001; Richards, 2007). 창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보다 자신감 있게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고(Runco & Richards, 1998)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며 일상의 기쁨을 즐기고 누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sikszentmihalyi, 1990).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창의성이 인간의 발달에 긍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데 동의한다(Kumar, Kemmler, & Holman, 1997; Sternberg & Lubart, 1992).

특히, 창의성의 발달시기 상 유아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실제로 유아기 창의성에 대한 현장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유아기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혹은 환경적 변인에 관한 연구들(Barron, 1995; Gute, Gute, Nakamura, & Csikszentmihalyi, 2008)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유아의 직접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유아교사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아교사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사가 창의성 교육에 대한 확실한 의미와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현장에서도 창의성교육이 잘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은, 이화선, 김은아, 최인수, 2006). 이는 유아교사들의 창의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식의 부족, 창의적인 유아에 대한 이해 부족, 창의성 실시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교사가 창의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자신의 창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창의성 교육을 실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사는 개인적 자질뿐 아니라 전문적 자질 및 능력과 태도를 갖추고 교육현장에서 유아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유아교사의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교육의 담당자인 유아 교사들의 창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성 교육에 대한 보수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비유아교사들의 양성교육과정에서 스스로의 창의성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

다. 창의성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닐 뿐 더러 창의성 및 창의성 교육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지만 유아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인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사 자신의 창의성은 유아교육현장에서 행하는 교수활동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교사 스스로가 창의적이고 창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유아의 창의성을 보다 잘 계발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 유아교사의 창의성은 유아에게 질 높은 창의성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로서 창의성에 대한 인식수준과 창의성이 높은 교사일수록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Shaw & Clatt, 1986). 여러 연구에서 교사의 창의성은 유아의 창의성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그들 스스로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지원이나 격려를 받고 창의성이 가치로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경우, 구성원들은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정교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Baer & Oldham, 2006). 즉, 유아들이 교사로부터 창의적인 사고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유아는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유아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하지만, 최근 들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새롭고

(novel) 적절한(appropriate)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Barron, 1988; Hennessey & Amabile, 1988; Perkins, 1988). 즉, 창의성을 측정함에 있어 새로움과 적절함은 핵심적인 준거로 적용된다. Runco, Plucker와 Lim(2001)은 기존의 창의적 산출물 검사가 개인의 창의적 산출물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창의적 산출물 검사 시행 시 소요되는 시간적 소비와 주관적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Runco 아이디어 행동 척도(Runco Ideational Behavior Scale; RIBS)를 개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모든 수준의 창의성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창의성 척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준거가 된다. RIBS는 사고의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로서, 개인이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능력,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능력, 아이디어를 다루는 기술 등을 반영한다(Runco, Plucker & Lim, 2001). 즉, 창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독창적이고 융통성 있는 생각을 통해 유용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성은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한 유아를 가르치게 될 예비유아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다.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해 살펴보면, 최근 성인기 창의성 연구에서 관심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가 정서와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정옥분 외, 2009). 정서는 창의성과 여러 방법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정서는 때로는 창의성 발현의 촉진자로서, 때로는 억제자로서, 또 때로는 정서 그 자체가 창의적 산물이 되기도

한다(Averill, 2005). 일반적으로 긍정적 정서는 창의성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긍정적 정서는 문제해결상황에서 사고의 융통성을 증진시키고 의사결정시 효율성과 완벽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dler & Obstfeld, 2007; Amabile, Barsade, Mueller & Staw, 2005; Davis, 2009). 즉, 행복, 즐거움 등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복잡한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심리적 여유와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 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최선의 것을 선택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긍정적 정서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Isen, Rosenzweig, & Young, 1991)들에 따르면, 부정적인 정서 상태보다는 긍정적 정서 상태에서 사람들은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특히, 행복한 정서를 가질 때에는 우울하거나 불안한 정서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 비해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상이 가능하므로 성급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

반면 부정적인 정서는 창의성과 일관된 관계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부정적인 정서 중 어떤 정서와의 관련성을 측정하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적인 정서 중 불안은 창의성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Probst, Stewart, Gruys, & Tierney, 2007; Higgins, Qualls, & Couger, 1992; Levin, 2008)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결과가 불확실할 때, 그 결과가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을 때, 그 사건을 스스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불안을 느끼게 된다. 즉, 불안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상황에 대한 통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느끼는 정서이다. 불안이 야기되면, 불안을 처리하게 위해 심리적, 행동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데(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 불안수준이 높아지면 긴장이 되고, 초조하고 우유부단하며 주의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김중술, 2001). 또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매우 내성적이고 강박적이며 의식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적절한 자질이나 창의성이 부족할 수 있다(김금미, 이은경, 2003; 대한신경의학회, 1998). 특히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는 높은 불안을 느끼는 데 이러한 불안은 낮은 창의적 성취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 정서인 행복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인 불안이 낮을수록 창의성을 발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성격의 5요인(성실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호감성) 중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지성, 인지, 창조, 상상, 참을성, 교양 및 탐구로 구성되어 있다(Goldberg, 1992). 경험에의 개방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의 풍요로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험에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비연관 요소들 간의 관계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어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Mednick, 1962). 이러한 지각 및 아이디어의 개방성은 부분적으로 비연관 자극에 대한 억제나 두려움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Peterson, Smith & Carson, 2002). McCrae와 Costa(1997)에 따르면, 개방적인 사람은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주 낮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며 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가지게 된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 사람일수록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하며 보다 모험적이며 독창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의성을 예측할 수 있다(Feist, 1998; Silvia, Nusbaum, Berg, Martin, & O'Connor, 2009). 이처럼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경험에의 개방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맥락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Andrews & Smith, 1996; Burke & Witt, 2002).

한편, 자기효능감은 학습, 일, 건강, 사회적응, 안녕감 등과 같은 여러 다양한 영역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andura, 1997; 2001).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자기 스스로 활동을 선택하며 노력하고 끈기 있는 인내심으로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여러 연구에서 자아효능감은 창의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ghetto, 2006; Chang, 2009). 높은 자기효능감은 과제에 대한 수행능력을 정확하게 예측한다(Bandura & Schunk, 1981).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Bandura, 1997), 다양한 상황에서 최선의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창의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Ford(1996)는 자신의 개인적 창의성 모델에서 자기효능감이 동기적 요소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자기효능감이 창의적 행

동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창의적 산출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가 많으며, 창의적 산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chack, 1991).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은 창의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정서와 정적인 상관이 있고(Caprara, Steca, Gerbino, Paciello, Vecchino, 2006; Kavanagh & Bower, 1985),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munian, 1989). 즉, 행복하고 즐거울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는 반면, 불안하고 초조해질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rtman & Betz, 2007). 요컨대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와 경험에의 개방성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을 높임으로써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을 경험에의 개방성 및 정서와 창의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예비교사의 정서 및 개방성, 자기효능감은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서 및 개방성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정서, 경험에의 개방성, 자기효능감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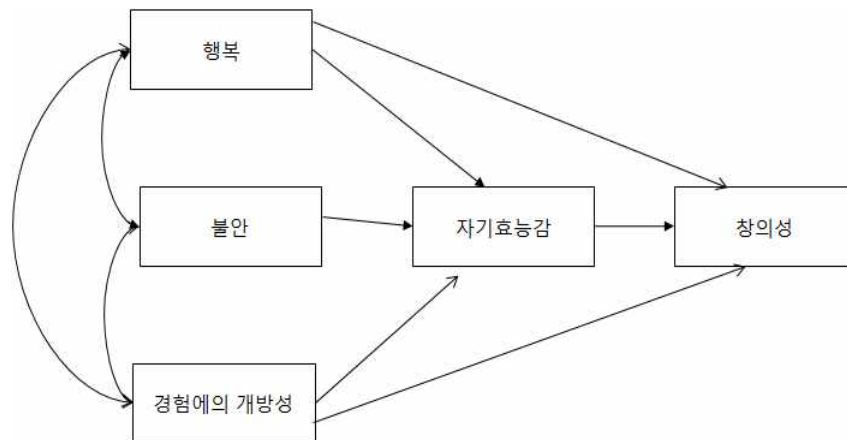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경험에의 개방성, 정서, 자기효능감과 창의성 간의 관계

미치는 지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답 15부를 제외한 총 18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남학생은 11명(5.9%)이고, 여학생은 175명(94.1%)이다. 평균연령은 24.88 ($SD=8.88$)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3개 대학의 아동학 및 유아교육과 4학년 187명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은 보육실습이나 유아교육실습을 이수한 상태라 보육 및 교육현장에 대한 예비지식을 갖춘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본 연구자와 타학교 아동학 및 유아교육 교수 등의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202부였으며, 이 중 성실하지 못한 응

2. 측정도구

정서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적 정서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Hill과 Argyle(2002)가 개발한 옥스퍼드 행복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인성측정도구와 높은 상관을 보임에 따라 준거관련타당도가 입증되었다(Hills & Argyle, 2002). 본 척도는 행복을 평가하는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1이다. 예비유아교사의 부정적 정서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등(1970)이 개발한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1978)이 한국형으로 표준화

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특성불안척도와 상태불안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척도의 점수만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9이다.

경험에의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성격의 5요인(성실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호감성) 중의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유태용 등(1997)이 개발한 성격 5요인 검사의 하위요인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성격 5요인 검사는 성실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호감성 등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경험에의 개방성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는 .78이었다.

자기효능감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 Rogers(1982)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및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인성측정도구와 높은 상관을 보임에 따라 준거관련타당도가 입증되었다(Maddux et al., 1982).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1이다.

창의성 측정

예비교사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Runco, Plucker와 Lim(2001)의 RIBS(Runco's Ideational Behavioral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Runco, Plucker, & Lim, 2001). 창의적 행동척도는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높고 아이디어 생성 기술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91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2010년 4월 예비조사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적절치 못한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본조사 실시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체크하였다. 본조사는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고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강의실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정서, 경험에의 개방성, 자기효능감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정서, 경험에의 개방성, 자기효능감과 창의성 변인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고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

ximation)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살펴보았다. 이들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과 AMOS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유아교사의 정서, 경험에의 개방성, 자기효능감과 창의성 간의 관계

예비유아교사의 정서, 경험에의 개방성, 자기효능감과 창의성 간의 관계는 표 1과 같다. 예비유아교사의 행복은 불안($r=-.65, p<.001$)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험에의 개방성($r=.53, p<.001$), 자기효능감($r=.60, p<.001$), 창의성($r=.39, p<.0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유아교사가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불안은 덜 느끼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경험에의 개방성($r=-.38, p<.001$), 자기효능감($r=-.35, p<.001$), 창의성($r=-.30, p<.001$)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유아교사가 불안하다

고 느낄수록 경험에의 개방성, 자기효능감, 창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경험에의 개방성은 자기효능감($r=.42, p<.001$), 창의성($r=.32, p<.0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유아교사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은 창의성($r=.50, p<.0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자기효능감이 정서 및 경험에의 개방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기본 모형을 추정하였다(그림 2 참조). 다음 단계에서 정서(행복, 불안)와 경험에의 개방성에서 창의성으로의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후, χ^2 검증을 이용해 기본 모형과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한지 비교하였다. 끝으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Sobel(1982)의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예비유아교사의 정서, 경험에의 개방성, 자기효능감과 창의성 간의 관계

	행복	불안	경험에의 개방성	자기효능감	창의성
행복	1	-.65***	.53***	.60***	.39***
불안		1	-.38***	-.35***	-.30***
경험에의 개방성			1	.42**	.32***
자기효능감				1	.5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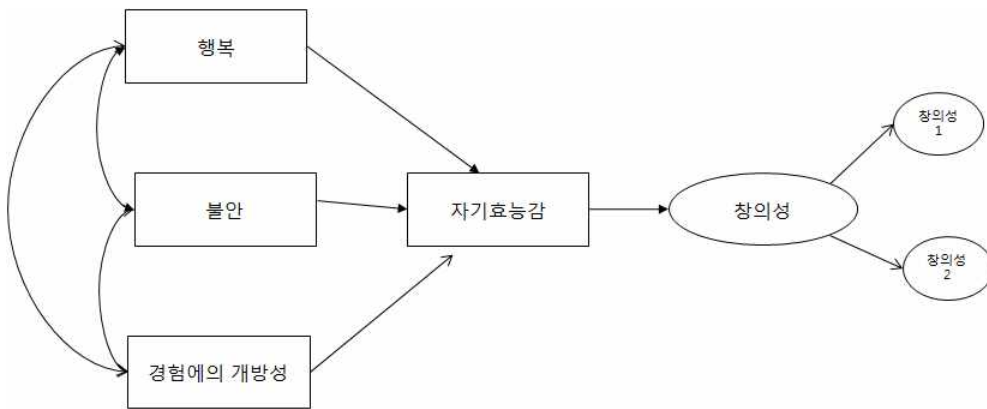


그림 2. 기본모형

먼저, 예비유아교사의 정서 및 경험에의 개방성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불안에서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2, 그림 3 참조). 즉, 정서와 경험에의 개방성은 자기효능감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창의성과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기본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_{df=6}=9.83$, $p=.13$, $TLI=.93$, $CFI=.92$, $RMSEA=.05$).

다음으로, 기본 모형에 행복, 불안 및 경험에의 개방성에서 창의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를 추가하여 자기효능감을 부분매개 변인으로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chi^2_{df=3}=4.62$, $p=.20$, $TLI=.99$, $CFI=.99$, $RMSEA=.05$). 부분매개모형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행복은 자기효능감($\beta=.58$, $p<.001$)을 통해 창의성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고($\beta=.44$, $p<.001$), 경험에의 개방성도 자기효능감($\beta=.15$, $p<.05$)을 통해 창의성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다($\beta=.44$, $p<.001$).

표 2. 기본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경로 계수	S. E	C. R
경험에의 개방성 → 자기효능감	.15**	.18	.08
불안 → 자기효능감	-.10	.11	.08
행복 → 자기효능감	.59***	.51	.07
자기효능감 → 창의성	.53***	.41	.06

*** $p<.001$, ** $p<.05$

표 3.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경로 계수	S. E	C. R
경험에의 개방성 → 자기효능감	.15	.08	2.24*
불안 → 자기효능감	.10	.08	1.27
행복 → 자기효능감	.59	.07	6.96***
경험에의 개방성 → 창의성	.09	.07	1.10
자기효능감 → 창의성	.44	.07	5.03***
행복 → 창의성	.02	.08	.17
불안 → 창의성	-.11	.08	-1.26

*** $p<.001$,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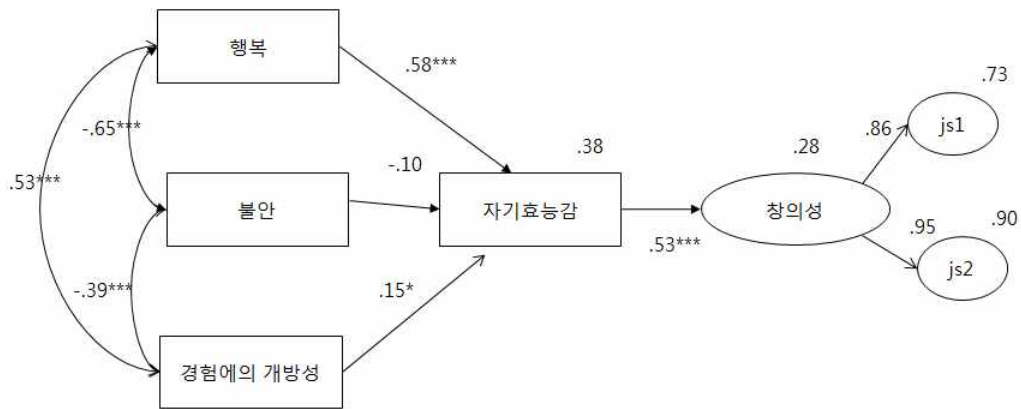


그림 3. 완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한편, χ^2 검증을 이용하여 이전 단계에 추정 한 기본 모형과 연구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 한 결과,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지지 않았다($\Delta\chi^2_{df=3}=3.21, p>.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명한 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그림 3 참조).

최종모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Sobel 검증¹⁾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행복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와 경험에의 개방성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행복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Z는 4.98이므로 $\alpha=.05$ 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행복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험에의 개방성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창의성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2.13, p<.05$). 즉, 경험에의 개방성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행복과 경험에의 개방성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창의성을 간접적으로만 예측하였다. 다시 말해, 예비유아교사들이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높은 자기효능감은 다시 높은 창의성을 예측하였다. 또한 예비유아교사가 경험에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높은 자기효능감은 다시 높은 창의성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과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정서, 경험

1) sobel 검증 공식은 다음과 같다.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에의 개방성, 자기효능감이 창의성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정서 및 경험에의 개방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정서, 경험에의 개방성, 자기효능감, 창의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행복은 불안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험에의 개방성, 자기효능감, 창의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유아교사가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불안은 덜 느끼고,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고, 주어진 상황이나 과제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며, 창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 즐거움 등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자기효능감 간에 관련이 있다(Caprara, Steca, Gerbino, Paciello, Vecchino, 2006; Kavanagh & Bower, 1985)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긍정적 정서는 새로운 상황에서 위축되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개방성과 복잡한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심리적 여유와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성의 발현을 촉진시킨다(정옥분 외, 2009; Davis, 2009;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의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서적 상태는 분위기와 일치하는 사고를 하게끔 유도함으로써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보다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과업에 대한 성취욕구가 높아지는 반면,

불안해하거나 우울하다고 느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Kavanagh & Bower, 1985).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더 자주 경험할수록,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Seligman, 2002). 과거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만족감, 흡족함, 평온함의 느낌을 포함하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희망, 낙관성, 믿음, 신뢰감 등의 느낌을 제공한다. 이처럼 긍정적 심리가 개인의 안녕감과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eligman, 2002;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아교사 양성과정 동안 예비유아교사들의 긍정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적 정서인 불안은 경험에의 개방성, 자기효능감, 창의성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가 불안하다고 느낄수록 새로운 경험에 대한 도전의식이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이 새로운 경험에의 도전을 방해하는 위축행동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반면(Kagan, 1989), 자기효능감과 부적 관계가 있고(Comunian, 1989) 창의성과 부적 관계를 갖는다(Probst, Stewart, Gruys, & Tierney, 2007; Higgins, Qualls, & Couger, 1992; Levin, 2008)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Kanfer와 Heggestad(1997)의 모델에 따르면, 불안은 과업에 집중하는 데 필요한 정서를 조절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자기조절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즉, 불안수준이 높아지면 긴장성이 높아지고 초조해지며 자신감을 잃게 된다. 또한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 문제의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예비유아교사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경험에의 개방성은 자기효능감, 창의성과 정적인 상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가 새로운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고 새롭고 유용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험에의 개방성이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에 있고(Hartman & Betz, 2007), 경험에의 개방성이 창의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George & Zhou, 2001; Silvia, Nusbaum, Berg, Martin, & O'Connor, 2009)는 선행연구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유아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갖는 사람들이다. 특히 유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상력과 호기심이 높은 시기로 유아들은 다양한 탐색과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간다. 유아교사가 유아의 도전과 탐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지해 줄 때, 유아들은 보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비유아교사들이 대학생활 동안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은 창의성과 정적인 상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다양한 상황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창의성 간에 정적 관계가 있다(Beghetto, 2006; Chang, 2009)는 선행연구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특정 과업이나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면 과업에 대한 내적 동기가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높은 내적동기는 창의성의 성취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서와 경험에의 개방성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적인 정서와 경험에의 개방성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인 정서와 경험에의 개방성이 높은 예비유아교사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높은 자기효능감은 창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 정서와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 창의성의 발현에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창의성 영역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creative self-efficacy)이라는 용어가 도입되고 있고(Tierney & Farmer, 2004; Beghetto, 2006),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성의 표현 및 산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ghetto, 2006; Choi, 2004).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가 높은 예비유아교사일수록 다양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유용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이러한 자기효능감에는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경험에의 개방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고려해볼 때, 예비유아교사가 긍정적인 정서와 다양한 경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 증진에 있어 긍정적 정서, 경험에의 개방성 및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적 정서 및 경험에의 개방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창의성의 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뿐 아니라 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뿐 아니라 학교환경 변인과 사회환경 변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창의성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측정방법도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을 창의적 사고 측면에서 다루었다. 추후연구에서는 창의성 측정에 있어 창의적 인식, 창의적 산출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에 관한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미래의 주역이 될 유아들이 개방적인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153.
- 김경은, 이화선, 김은아, 최인수 (2006). 유아 창의성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요구도 조사. *생활과학*, 10, 167-187.
- 김금미, 이은경 (2003). 불안, 성별 및 지배성, 진보성이 사회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 향: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8(3), 35-52.
-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술 (2001).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 *신경정신과학*. 서울: 하나의학사.
-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 (1997). 5요인 성격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0(1), 85-102.

- 정옥분, 한성열, 이숙자, 이종호,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2009). 대학생의 정서 및 자기조절능력과 창의성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6(2), 171-190
- Adler, P. S., & Obstfeld, D. (2007). The role of affect in creative projects and exploratory search.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6(1), 19-50.
- Amabile, T. M., Barsade, S. G., Mueller, J. S. & Staw, B. M. (2005). Affect and Creativity at Work.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0, 367-403.
- Andrews, J., & Smith, D. C. (1996). In search of the marketing imagination: Factors affecting the creativity of marketing programs for mature prod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3, 174-187.
- Averill, J. R. (2005). Emotions as mediators and as products of creative activity. In J. Kaufman & J. Baer (Eds.), *Creativity across domains: Faces of the muse*, (pp.225-243), Mahwah, NJ: Erlbaum.
- Baer, M., & Oldham, G. R. (2006). The curvilinear relation between experienced creative time pressure and creativity: Moderating effects of openness to experience and support for creativ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 963-970.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ndura A.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26.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Barron, F. (1988). Putting creativity to work. In R. 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Contemporary psychological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ron, F. (1995). *No rootless flower: An ecology of creativity*. Cresskill, NJ: Hampton.
- Beghetto, R. A. (2006). Creative self-efficacy: Correlates in middle and secondary student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8, 447 - 457.
- Burke, L. A., & Witt, L. A. (2002). Moderators of the openness to experience-performance relation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 712-721.
- Caprara, G. V., Steca, P., Gerbino, M., Paciello, M., & Vecchio, G. (2006). Looking for adolescents' well-being: Self-efficacy beliefs as determinants of positive thinking and happiness. *Epidemiologia e Psichiatria Sociale*, 15, 30 - 43.
- Chang, C. H. (2009). The Relationships among Job Stress, Job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Creativity. ethesys.lib.pu.edu.tw.
- Choi, J. N. (2004). Individual and contextual predictors of creative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processe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6, 187-199.
- Comunian, A. L. (1989). Some characteristics of relations among depression, anxiety, and self-efficac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9, 755 - 764

- Cropley, A. J. (2001). *Creativity in education & learning*, UK: Kogan page.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Y: Harper & Row.
- Davis, M. A. (2009).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od and creativity: A meta-analysi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108(1), 25-38.
- Feist, G. J. (1998). A meta-analysis of personality in scientific and artistic creativ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 290-309
- Ford, C. 1996. A theory of individual creative action in multiple social domai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 1112-1142.
- George, J. M., & Zhou, J. (2001). When openness to experience and conscientiousness are related to creative behavior: An interactional approa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3), 513-524.
- Goldberg, L. R. (1992). The development of markers of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4, 26-42.
- Gute, G., Gute, D. S., Nakamura, J., & Csikszentmihalyi, M. (2008). The early lives of highly creative persons: The influence of the complex famil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0(4), 343-357.
- Hartman, R. O., & Betz, N. E. (2007). The five-factor model and career self-efficacy: general and domain-specific relationship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 145-161.
- Hennessey, B. A., & Amabile, T. M. (1988). The role of environment in creativity. In R. J. Sternberg (Ed.). *The nature of creativity*(pp. 11-38).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ggins, L. F., Qualls, S. H., & Couger, J. D. (1992). The role of emotions in employee creativit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6, 119 - 129.
- Hills, P., & Argyle, M. (2002).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1071-1082.
- Isen, A. M, Rosenzweig, A. S., & Young, M. J. (1991).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clinical problem solving. *Medical Decision Making*, 11, 221-227.
- Kagan, J. (1989). Temperamental contributions to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668-674.
- Kavanagh, D. J., & Bower, G. H. (1985). Mood and self-efficacy: Impact of joy and sadness on perceived capabiliti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9, 507-525
- Kumar, V. K., Kemmler, D., & Holman, E. R. (1997). The Creativity Styles Questionnaire-Revised,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0(1). 51-58.
- Levin, C. (2008). Creativity in the school context. Doctoral thesis in Land University.
- Lyubomirsky, S., King, L. A.,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 803-855.
- McCrae, R. R., & Costa, P. T. (1997). Conceptions

- and correlates of openness to experience. In R. Hogan, J. A. Johnson, & S. R. Briggs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pp. 825-847). Orlando, FL: Academic Press.
- McGregor, J., Arndt, M., Berner, R., Rowley, I., & Hall, K. (2006), The world's most innovative companies, *Business Week*, April 24, 62-74.
- Mednick, S. A.(1962). The associative basis of the creative process. *Psychological Review*, 69, 220-232.
- Nonaka, I (1991) The knowledge-creating company. *Harvard Business Review*, 96-104.
- Peterson, J. B., Smith, K. W., & Carson, S. (2002). Openness and extraversion are associated with reduced latent inhibition: Replication and commenta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1137-1147.
- Probst, T. M., Stewart, S. M., Gruys, M. L., & Tierney, B. W. (2007). Productivity, counter productivity and creativity: The ups and downs of job insecurity.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0, 479-497.
- Richards, R. (2007). *Everyday creativity and new views of human natur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Press.
- Runco, M. A., & Richards, R. (1998). *Eminent creativity, everyday creativity, and health*. Greenwich, CT: Ablex. Simonton.
- Runco, M. A., Plucker, J. A., & Lim, W. (2001).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integrity of a measure of ideational behavior.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3, 393-400.
- Schack, G. D. (1991). Self-efficacy and creative productivity: Three studies of above average ability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1, 44 - 52.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haw, J. M. & Cliatt, M. T. J. (1986). A Model for Training Teachers to Encourage Divergent Thinking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0(2), 81-88.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ilvia, P. J., Nusbaum, E. C., Berg, C., Martin, C., & O'Connor, A. (2009). Openness to experience, plasticity, and creativity: Exploring lower-order, higher-order, and interactive effec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 1087-1090.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Palo Alto, Calif.: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2). Buy low and sell high: An investment approach to creativ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 Science*, 1, 1-5.
- Thompson, L. (2003). Improving the creativity of organizational work groups.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7, 96-109.
- Tierney, P., & Farmer, S. M. (2002). Creative self-efficacy: Its potential antecedents and relationship to creativ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 1137 - 1148.

1차 원고접수 : 2011. 1. 8

수정원고접수 : 2011. 2. 18

최종게재결정 : 2011. 3. 2

Emotions, Openness to Experience, Self-efficacy and Creativity: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Kyoung-Eun Kim

Namseou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nner in which emotion, openness to experience and self-efficacy related to creativity and explored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emotion-creativity and personality-creativity relationship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87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Child Study from around the Seoul Greater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revealed that positive emotions related positively to openness to experience, self-efficacy and creativity but in contrast, negative emotions related negatively to openness to experience, self-efficacy and creativity. Openness to experience related positively to self-efficacy and creativity and self-efficacy related positively to creativity. Furthermore, self-regulation was found to mediate the effects of positive emotions and openness to experience on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creativity. The influence of positive emotions and openness to experience on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creativity occurred indirectly through the facilitation of self-efficacy. The importance of positive emotions, openness to experience and self-efficacy to predict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is also discussed.

Key words :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emotion, openness to experience, self-efficacy, creativity, self-regulation, mediating effect, SEM